

법 어

불광 창립 39주년에 맞추어 불광 신축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중창불사를 이끌어 오신 회주 지홍스님과 소임자, 그리고 불광법회 회장단을 필두로 한 불광 불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4년 ‘월간 불광’ 발행을 시작하여 어엿하게 40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불광은 한국 불교를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이끌어 오신 금하 광덕스님은 조계종단의 사표이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물줄기를 개척해 오신 선각자이셨습니다.

이러한 깊고 넓은 뜻이 담긴채 1982년 이 곳에 자리잡은 불광사는 호법도량이었으며, 불교의 선지식들이 모여 법석을 벌였던 공간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여기에 계신 불광의 사부대중이 증명하면서 숭고하게 이어 받고 있습니다.

불광 불자 여러분!

중창불사의 원력을 세워 온 여러분이 다시금 희망과 행복이라는 앞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청명함과 풍성함을 담아 격려와 찬탄의 말씀을 전하며, 불모지에서 한국불교의 리더로 역할을 해왔듯이 도래할 시대에도 불광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한국 불교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한국 불교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없었던 노력들이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템플스테이 등을 통하여 경쟁과 폭력에 찌든 우리 사회에 청량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내부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모래밭에 집을 짓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광이 전법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내적 능력을 갖추는데도 충분한 역

할을 다해 왔기에,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자부심으로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인이 희망하는 것을 앞서 실천하면서 모범이 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 속에서 진정한 결실이라 함은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원력으로 불사를 이루어 내고 다시 이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기도정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덕을 나누는 것이요, 남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것이니 진정한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전통과 환경을 조화롭게 하는 불광사로 거듭나면서 지역을 아우르는 사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은 현재의 많은 사찰에, 또한 후대의 불자들에게 모범이자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회향은 이 지역은 물론 불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을 실현하는 것이며,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반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를,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광덕 스님의 덕화와 여러분들의 원력이 함께하여 불광 중창불사가 원만성취 하였습니다. 노심초사 진력을 다하시며 오늘의 공덕을 있게 한 지홍스님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청명함을 더 하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정성을 부처님께 축원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